



이동식 / KBS-ITV 편집주간

신명절증후군

방 송기자로서 뉴스와 함께 사반세기 이상을 살아온 필자에게도 명절증후군이 있다. 아
니 정확히 말하자면 연휴증후군이라고나 할까. 평소의 주말은 뉴스시간이 줄어 조금
정신적인 여유가 있지만 연휴가 되면 그 때에 나갈 뉴스를 미리 제작해야하는 관계로 늘 출
근까지 해야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연휴가 다가오면 마치 우리 며느리들의 명절증후군
처럼 방송기자들은 연휴증후군이라는, 남들이 잘 이해 못해주는 증상이 나타나 고민하게
된다.

예외없이 찾아온 연휴증후군 | 이번 추석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럭저럭 준비를 하
고, 본격 연휴가 되면 하루 이틀쯤 쉴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불
청객인 태풍 "매미"에 의해 바람 앞의 연기가 되어버렸다. 추석날부터 들려오는 초강력태풍
에 대한 경고가 결국은 사망 120명이 넘는, 그리고 무수한 기간산업시설이 쓰러지는, 44년
만의 가장 가혹한 피해로, 그리고 방송기자들에게는 매일 출근뿐 아니라 며칠 밤을 새는 시
련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집안에서는 조그만 사건이 있었다. 추석 전 날 흠어져 살고 있는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겁게 식사를 한 뒤의 일이다. 어른과 형제들이 먹어치우고 남은
설거지 거리가 산처럼 쌓여있는데, 뜻밖에 막내 남동생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자청을 한 것
이다. 너무나 뜻밖의 제안이어서 집사람이나 나나 내심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 고
민을 하고 있는 사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제수씨가 함께 오지 못한 미안함을
대속하려는 뜻도 숨어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막내 남동생은 성큼성큼 설거지대로
걸어가 이미 수도꼭지를 틀고 있었다.

결혼해서 이 집안에 들어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어른들이 계시고 다른 며느리도 있는데 아들이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처음이다. 그런데 어른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반대말씀도 안하시는 것이었고, 그 덕에 신이 난 것은 우리 집사람이었다. 동서를 시키는 것도 편하게 생각할 수 없었던 집사람은 그야말로 갑자기 하늘로 솟아오를 듯한 힘을 받은 모양이다. 자기의 가장 견고한 아성인 부엌을 내 준 수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화색이 돌며 목소리가 밝아진다.

다음날 형제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집사람은 벌써 시동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명절증후군이 싹 사라진 모양이다.



새로운 고민거리 명절증후군 | 그러다보니 이번에는 나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자, 이번 명절은 넘어갔다지만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다? 그러지 않아도 밖에서 연휴증후군이라는 직업병을 앓고 있는데, 이제는 집안에 들어와서도 명절 때에는 설거지를 자청해야 하는게 아닌가? 뻔히 집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남자라고 앉아서 명명만 하면, 명절이 끝난 이후 다음 명절까지의 긴 시간동안 구박을 당할 것은 뻔할 이치. 그러니 이제는 내가 명절증후군이란 새로운 골칫

거리까지 고민해야 한다.

그러니 젊은 여성들이여, 남성들은 이미 자랄 때부터 손에 물을 묻히기는커녕 밥그릇 하나도 손도 안대고 커서 부엌이라는 공간은 여성의 전유물로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러기에 며느리들의 명절증후군도 어쩔 수 없는 한국적인 문화라고만 치부해왔지만 이제 당신의 아들이 다 컸을 때에는 가사분담의 압력은 현재보다 몇 배나 커질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아들들에게 명절증후군이라는 고통을 주지 않으려거든 이제부터라도 어릴 때부터 손에 물을 묻히도록, 설거지를 하도록 시켜야 한다. 그것은 절대 사내들에게 창피한 일이 아니다. 점점 남녀의 역할과 권리, 의미까지가 평등해지는 새로운 세상에서 아들들이 건강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될 것이다.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과외를 시키기보다는 가사일들을 가르치는게 더 현명한 투자가 될 것이다. PPFK